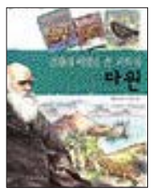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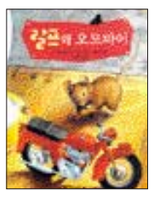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진화의 비밀을 푼 과학자 다윈=역사속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을 만나는 기쁨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와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펴낸 '내가 만난 역사 인물 이야기' 시리즈.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의 비밀을 밝혀낸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의 전기를 다뤘다. 〈창비·1만1천원〉

▲성적표=성적만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성적지상주의 학교와 사회에 던지는 통쾌한 메시지. 당돌하고 고집 센 천재소녀 노라는 착하고 성실한 평범 소년 스티븐과 함께 0점시위를 벌인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중학생이 되기 전 알아야 할 세계사 정리노트=호모에렉투스가 피웠던 불의 흔적에서 부터 우주정거장 건설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부록으로 세계의 역대교황·총리·대통령의 연표를 수록했다. 〈거인·9천원〉



▲랄프와 오토바이=빨리 어른이 되고픈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을 재치있게 그린 동화. 남자 주인공 키스는 얼른 어른이 되어 진짜 오토바이를 타는 게 소망이다. 〈시공주니어·7천원〉

▲장자가 들려주는 달인이야기=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지가 끼고 오염된 마음을 정화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장자의 철학을 담았다. 주인공 선우는 두루아저씨와의 캠핑여행을 통해 진정한 달인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 〈자음과 모음·9천700원〉

연암은 친구 죽음에 벼슬을 포기했다

소신에 목숨을 건 조선의 아웃사이더 노대환 지음

어느 시대나 자신의 신념과 양심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곡진 삶을 자초한 인물들은 많다. 사대사화라는 피비린내 나는 당쟁을 겪은 조선시대에는 유독 신념 때문에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인물들이 많다.

조선 정조 때 선비인 이옥은 자신만의 글쓰기를 고집하다 평생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는 정조가 문체를 단속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단행한 문체반정(文體反正)의 희생양이었다. 문체반정은 단편소설이나 수필에 해당되는 패관문학(稗官文學)을 금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소설체로 쓴 과거시험 답안지를 고치라는 정조의 명을 어기고 벼슬길을 접었다.

대중역사서 저술가인 노대환씨가 쓴 '소신에 목숨을 건 조선의 아웃사이더'는 엄혹한 성리학적 지배질서와 신분제의 제약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12명 선비들의 삶을 추적한 책이다.

심노숭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했던 조선사회에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유별난 인물이다. 그는 숨진 아내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심정을 담은 글을 수십편이나 지었다. 선비들이 아내가 죽었을 경우 간혹 제문에 애통한 심정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심노숭의 글은 이례적이다.

당대 인기작가였던 연암 박지원이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포기한 이유는 절친한 벗의 죽음 때문이었다. 연암은 빼어난 문장으로 인해 조정에서 과거시험과 별도로 특별 채용하자는 여론이 제기될 정도였지만, 친구의 죽음 때문에 정치에 환멸을 느껴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연암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절친했던 친구였던 선비 박필순은 정치공작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다. 박필순의 생을 마감하게 한 것은 당시 '불온서적'이었던 중국의 역사서 '강감회찬'을 읽었다는 죄목이었다.

양산보는 스승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죽음을 맞자 담양에 소쇄원을 짓고 은거하면서 처사로 지냈다. 시인, 묵객들이 소쇄원의 절경 때문에 이곳을 즐겨찾기도 했지만 정작 소쇄원에 인물들이 모인 이유는 양산보의 절개를 높이 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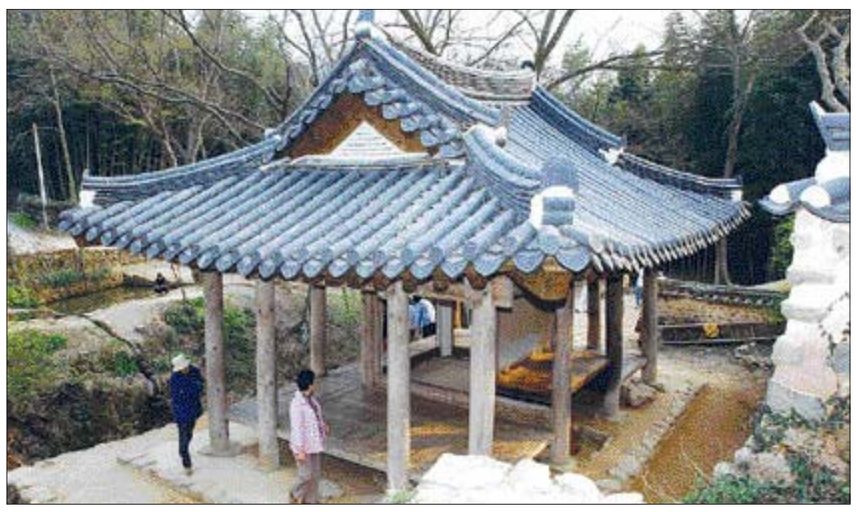
조선 중기에 학문적으로 이황과 쌍벽을 이뤘던 인물은 남명 조식이었다. 남명을 스스로 한 남명학파가 최고로 친 삶은 의리를 지키는 것과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다. 남명의 제자들은 모두 의리와 실천정신을 중시했지만 정인홍은 그 가운데서도 유별난 인물로 꼽힌다.

그는 광해군 때 영의정을 지내면서 임금인 광해군, 스승인 남명과의 의리를 지켜려다 결국 저잣거리에서 참수당함으로써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다.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를 양산했던 조선시대에 김치진은 천주교를 몰아내는데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다 처형당한 인물이다. 그는 천주교에 잠입해 교류를 파악하는 등 천주교의 전파를 막는 데 투신하다 결국 밀무역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저자는 선비 12명의 삶을 설명한 뒤 책 군데군데에 당시 풍속을 담은 그림과 사료들을 싣고 있어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또 각 장의 말미에 '더 읽어보기' 코너를 만들어 당시의 시대상과 인물들의 후일담을 수록, 책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역사의 아침·1만3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양산보가 기묘사화로 스승인 정암 조광조를 잃고 난 뒤 벼슬길을 포기하고 평생을 은거했던 담양 소쇄원. 〈광주일보 자료사진〉

교육은 가진 자들의 특권이다

촘스키, 사상의 향연 오테로 지음

미국 지성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촘스키가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해 '내뱉은' 어록이 한데 묶여 나왔다.

'촘스키, 사상의 향연'은 촘스키의 인터뷰 10편, 강연 5편, 에세이 10편 등을 그의 제자인 UCLA 명예교수 C.P. 오테로가 엮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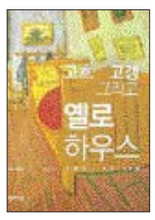
원제 'Chomsky, on Democracy & Education'(촘스키, 민주주의와 교육을 말하다)에서 알 수 있듯, 촘스키에게 민주주의와 교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는 책에서 교육은 민주주의를 심화·확대하는 필수 요소지만 지금도 가진 자들의 특권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지배권력의 술수에 놀아나기 알맞다고 경고한다.

촘스키 MIT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www.zmag.org/CHOMSKY)에서 촘스키 사상의 샘을 맛보는 것도 괜찮다. 〈시대의창·3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고흐와 고갱은 60일간 함께 살았다

고흐 고갱 그리고… 마틴 게이포트 지음



인상주의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은 1888년 10월23일부터 같은 해 12월25일까지 60여일 동안 프랑스 남쪽의 시골마을 아를에서 함께 살았다.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흐 고갱 그리고 옐로하우스'는 미술평론가 마틴 게이포트가 '미술사상 가장 유명한 동거'로 알려진 이들의 60일을 복원한 책이다. 마침 내년 3월16일까지 서울 시립미술관 본관에서 '반 고흐전'이 열리고 있어 더 눈길을 끈다.

뚜렷한 개성의 두 천재 화가는 '예상처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함께 야외에서 공동작업을 벌이는 우정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낙엽', '붉은 포도밭' 등이다.

저자는 방대한 양의 자료조사를 통해, 생생한 뒷이야기를 포함한 '이들의 60일'을 소설처럼 묘사했다. 〈안그라픽스·1만8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 권의 책

이장우·김보영 'Design+Marketing'

21세기는 '디자인을 입고, 디자인을 즐기며, 디자인을 말하는 시대'라고 한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는 '3D(Digital, Design, DNA)시대'라 일컫는다.

이는 물질적 부(富)를 넘어 문화, 가치, 생각, 정신과 감성 및 창조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꿈의 사회(Dream Society)를 의미한다.

급변하는 시대흐름 속에서, 이제 세계경제는 디자인 물결에 주목하고 있다. 하드 경쟁력에서 소프트 경쟁력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와 창조'라는 두 키워드를 연결시키는 해법으로 '디자인'을 선택했다.

좋은 디자인을 선별하는 통찰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고, 경영프로세스에 디자인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론을 모르는 기업 CEO들을 위해 필자는 컨설팅과 자문, 특강 등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써 왔다. 하지만, 스스로도 지금까지 디자인 마케팅에 대한 공통된 정의와 학습적 한계상황에 가로막혀 안타까워하던 터였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여러 신문들을 뒤적거리다가 한 신문에서 표지 디자인이 눈에 띄었다. 서점으로 달려가 구입하여 읽게 된 책이 바로 'Design+Marketing'(21세기북스)이다.

디자인 관련 전문서적이다 보니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누구라도 재미를 느낄 만 하다.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있는 투자

이 책은 디자인과 마케팅의 간극을 좁히고 디자인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쉽게 풀어냈다. 디자인 마케팅의 탄생 배경부터 성공사례 그리고 디자인 마케팅을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과 다양한 굿 디자인 이미지가 조화로운 편집이 책읽기의 지루함을 없애준다.

미래시장을 걱정하고 창조와 파괴, 그리고 혁신을 고민하는 많은 CEO들에게 이 책을 권유하고 싶다. 세계를 무대로 성장해 나가는 한국기업의 모든 마케터와 디자이너들에게 성공적인 디자인 마케팅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2006년 3월 전국 최초로 개원한 광주디자인센터의 유치와 개원,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등으로 바쁜 일과 속에서도 짬짬이 책을 뒤적거렸으나 최근 5~6년 동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기가 어려웠다. 또한, 대학 강단에 서면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디자인 관련 전문서적을 접해 보았지만 'Design+Marketing' 처럼 정독(精讀)을 해 본 적이 없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 경영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디자인이 기업경영에서 왜 중요하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과는 어떠한 관계 설정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시원하고 논리적으로 쉽게 말해주는 책은 그동안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차별화와 혁신, 그리고 창조적 전략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미래를 위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파괴적 혁신'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혜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윤리를 위해 사회공헌에 앞장섰다면 이제 아름다움을 위해 기업 이미지와 디자인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주저 없이 '디자인'이라고 답하면서 글을 갈무리 하고자 한다.

이 봉 규

〈(재)광주디자인센터 원장〉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어거스트 러쉬 (18세) 최고급관
2관 색,계 (18세)
3관 쏘우4 (18세)/베오울프 (15세)
4관 우리동네 (12세)
5관 세븐데이즈 (전체)
6관 식객 (18세)
7관 열 한번째 엄마 (12세)
8관 데스센텐스 (18세)
9관 헤어 스프레이 (12세)
5월 1일부터 메가티즌 데이 할인이 종료됐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로팝콘 뮤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열한번째엄마 (12세)
2관 이브닝 (15세)
3관 우리동네 (18세)
4관 스카우트 (12세)
5관 식 객 (12세)
6관 굿뜨에이지 (12세)
7관 베오울프 (15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 옥내·옥외 주차장 300대 •
• 빛고을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

한도시람 영화사람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히트맨 (18세)
2관 데스센텐스 (18세)
3관 색,계 (18세)
4관 세븐 데이즈 (18세)
5관 우리동네 (18세)
6관 헤어 스프레이 (12세)
7관 어거스트러쉬 (전체)
8관 베오울프 (15세)/마이클 클레이튼 (15세)
9관 열한번째 엄마 (12세)
10관 식 객 (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예매심야 상영합니다
콜롬버스 하남점 (10개관) 절찬리 상영중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색,계 (18세)
2관 우리동네 (18세)
3관 어거스트 러쉬 (전체)
4관 데스센텐스 (18세)
5관 열한번째 엄마 (12세)/식객 (12세)
6관 헤어스프레이 (12세)
7관 세븐 데이즈 (18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등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우나(오전8시~새벽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열한번째 엄마 (12세)
2관 베오울프 (15세)
3관 우리동네 (18세)
4관 어거스트러쉬 (전체)
5관 식 객 (12세)
6관 히트맨 (18세)
7관 헤어 스프레이 (12세)
8관 클레이튼 (12세) / 색,계 (18세)
9관 세븐데이즈 (18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멤버쉽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세븐데이즈 (18세)
2관 어거스트 러쉬 (전체)
3관 열한번째 엄마 (12세)
4관 우리동네 (18세)
5관 식 객 (12세)
6관 색, 계 (18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